



동호코스모가 14일 군산 새만금산업단지에서 최용기 회장을 비롯해 우범기 전북도 정무부지사와 김현숙 새만금개발청장, 회사 임직원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스마트 계량기 생산공장 착공식을 가졌다.

# 새만금에서 성공 신화를!

계량기 전문기업 동호코스모, 새만금공장 착공식 개최  
우즈베키스탄 계량기 사업자 선정으로 전량 수출 예정

새만금산단에 투자유치가 줄어 있는 가운데 '철단 무선 원격 검침시스템과 스마트 계량기(가스, 전기, 냉·온수, 열량 등) 생산제조 전문기업인 (주)동호코스모가 80억원 규모의 생산공장 건립에 들어갔다.

전북도는 (주)동호코스모가 14일 군산 새만금산업단지에서 (주)동호코스모 최용기 회장을 비롯해 우범기 전북도 정무부지사와 김현숙 새만금개발청장, 회사 임직원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스마트 계량기 생산공장 착공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지난 2018년 설립된 (주)동호코스모는 그동안 대구공장에서 정밀 계측기의 물체를 OEM방식으로 생산하고, AMI(원격 전력검침·관리 장치) 측정관리 시스템을 연구·개발하여 국내 및 해외에서 조립·제조와 설치·운영해 온 계량기 전문기업이다.

특히, 우즈베키스탄의 스마트계량

기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 지난해 우즈베키스탄 현지에도 공장을 설립하였으며, 우즈베키스탄 주택·공공 서비스 및 국영 에너지 기업과 각각 양해각서를 맺고 연간 100만대의 계량기를 공급할 예정으로 새만금에서 생산한 계량기를 우즈베키스탄에 전량 수출할 계획이다.

또한, 글로벌 스마트 계량기 시장의 빠른 확산과 개발도상국의 노후 계량기 교체사업 등 수요가 크게 증가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세계시장 진출 기반을 새만금에 구축할 계획이다.

동호코스모의 이번 생산공장이 완공되면 직접 생산에 참여하는 고용인원은 140여명, 도내 조달 부품생산에 참여하는 직·간접 고용인원은 530여명이 예상되고, 국제 및 지방세 납부 금액이 연간 약 35억원 이상으로 예상되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착공식을 개최한 (주)동호코스모의 최용기 회장은 "미래 신성장산업의 새로운 거점이 될 새만금에 생산공장을 착공하게 되어 기쁘다"면서, "공장이 본격 가동되면 전북기업으로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우범기 도 정무부지사는 "중앙아시아 등 대륙 진출을 꿈꾸는 동호코스모의 새만금산단 투자에 감사하고 공장 착공식을 축하한다"면서, "동호코스모의 지속적인 신기술 개발과 투자 확대로 새만금에서 성공 신화를 이어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새만금산단은 장기임대용지 66만㎡(20만평) 확보와 국내기업에 대한 임대료 인하 등으로 투자여건이 개선되고 동서·남북도로, 새만금~전주 간 고속도로, 국제공항과 항만, 철도 건설이 계획대로 추진되면서 투자 문의와 투자협약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어 전라북도는 새만금청 등 유관기관과 함께 대규모 투자유치 기반 마련과 투자 활성화를 위해 더욱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김진성 기자

## 文대통령, 오늘 美 국방장관 접견... 지소미아 논의할 듯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청와대에서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을 접견할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은 에스퍼 장관을 만나는 것은 지난 8월 이후 약 3개월 만이다. 이번 접견에서는 최근 한미 간 핵심 현안인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과 방위비 분담금 문제가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방위비 분담금 협정 구성 항목 외 한반도 역의 전력비용 등을 토대로 47억 달러에 달하는 방위비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문 대통령은 방위비 분담은 합리적이고 공평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미국은 오는 22일 종료되는 지소미아가 유지되길 바란다는 입장을 전달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일일 수출 규제를 철회하지 않을 경우 지소미아를 종료할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을 밝힐 것으로 전망된다.

에스퍼 장관은 한미 국방장관 협의체인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 참석하기 위해 램블 슈라이버 미 국방부 인도·태평양 안보 차관보, 브라이언 펜튼 국방부 장관 선임군사보좌관 등과 함께 이날 오후 한국을 방문한다. 또 마크 밀리 미 합참의장과 필립 데이비스 인도태평양사령관 등 군 주요 지휘관들도 SCM에 참석하기 위해 방한했다. 미국은 우리 정부와 군

관계자들을 잇따라 접촉해 지소미아와 방위비 분담금 문제에 대한 압박을 가할 것으로 보인다.

밀리 의장은 지난 10일(현지시간) 인도태평양 순방길에 기내에서 기자들과 만나 "평범한 미국인은 한국과 일본에 배치된 미군을 바라보며 '왜 저곳에 미군이 필요한가? 비용은 얼마나 드는가?' 이들은 매우 부유한 나라인데 왜 우리가 방어해 줘야 하는가?'라는 근본적 질문을 제기한다"며 방위비 분담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밀리 의장은 또 지난 12일 일본에서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회담을 갖고 지소미아에 대해 협의했다. 그는 회담 후 기자회견에서 "내일 방문하는 한국에서도 지소미아는) 협의 포인트가 된다"며 "기한이 끝날 때까지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뉴스

## '인생편빵, 마침내 꿈을 인정받다'

전국 농촌융복합산업 우수사례 경진대회서 부안군 슬지제빵소 우수상 수상

전북도는 농업의 1차·2차·3차산업이 융복합된 사업 활성화를 위해 농림축산식품부가 개최한 2019년도 농촌융복합산업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부안군 슬지제빵소(김술지 대표)가 우수상을 수상해 7회 연속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경진대회는 지자체의 농촌융복합산업(6차) 추진실적 등을 평가하는 대회로서, 각 시도에서 추천된 40개소(6차 인증 30, 지역단위 10)에 대해 서면 및 현장심사를 거쳐 최종 중앙 착공식을 축하한다"면서, "동호코스모의 지속적인 신기술 개발과 투자 확대로 새만금에서 성공 신화를 이어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새만금산단은 장기임대용지 66만㎡(20만평) 확보와 국내기업에 대한 임대료 인하 등으로 투자여건이 개선되고 동서·남북도로, 새만금~전주 간 고속도로, 국제공항과 항만, 철도 건설이 계획대로 추진되면서 투자 문의와 투자협약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어 전라북도는 새만금청 등 유관기관과 함께 대규모 투자유치 기반 마련과 투자 활성화를 위해 더욱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김진성 기자

척과 함께 발전가능성을 평가했다.

부안군 농업회사법인(유) 슬지제빵소는 아버지의 전통 발효기술을 계승·발전시켜 20-40대 젊은 소비자층을 타겟으로 한 오색편빵·크림치즈편빵 등 편빵 디저트를 개발했으며, 홈쇼핑, 전국 제과점 및 광주 강소년에 유통하는 것은 물론, 영국, 캐나다, 베트남 등 수출을 통해 틈새시장 공략에 성공했다.

또한, 시장의 규모화를 이길 수 있는 원동력으로 부안군 120개 지역 농가를 조직화하여 끊임없는 연구 개발과 전문성을 확보했고, 청년농업인들과 지역농업 프로젝트 기획·진행 등을 통해 이루어진 공간 서비스 산업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도 관계자는 "도의 핵심정책인 산락농업을 적극 추진하면서 사뭇하는 농촌을 육성하기 위하여 농촌체험 관광 활성화 등 농가소득 증대사업을 적극



지원한 성과"라고 밝혔다.

아울러, "지난해에 이어 7회 연속 수상을 통해, 전북도의 농촌융복합산업(6차) 위상을 다시 한번 높였다"며 "앞으로도 농촌융복합산업(6차)을 통하여 농촌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농가소득 안정과 일자리 창출 등 사뭇하는 농촌육성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진성 기자

## 문헌기록 통해 전북가야 역사 뿌리 찾는다

전북도, 오늘 가야 학술대회 개최

전북권역에서 새롭게 떠오르는 가야의 역사적 실체를 밝히기 위한 학술대회가 열린다.

전북도는 15일 국립중앙박물관 소강당에서 '전북지역 고대정치 세력과 가야'라는 주제로 학술대회가 개최된다고 14일 밝혔다.

전북도가 주최하고 전북사학회와 우석대 산학협력단이 주관하는 이번 학술대회는 가야사 연구복원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고양되고 있는 시점에서 전북지역 가야의 역사적 뿌리를 찾고 학술적 기반 체계화로 전북가야의 원형을 정립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학술대회는 전북사학회 이동희 회장과 전북도 황철호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수 장수군수가 참석하며 가야의 역사가 구체화 되기 이전 전북권역의 청동기, 철기문화 세력의 실상 파악부터 시작해 전북 고대정치세력과 가야에 대한 역사 문헌 검토를 통해 학계의 논의를 정리하고 최근 연구성과들과 상응되는 부분을 찾기 위한 발표와 토론이 진행된다.

1부에서는 청동기 시대-초기 철기시대 전북지역 정치체 검토(전북대학교 박물관 이종철 학예연구사)를 시작으로 호남권역 철기문화 중심세력의 성격과 특성(목포대학교 고고문화인류학과 김상민 교수), 백제의 전북 권역 진출(국가기록원 김병남 주무관)까지 3개의 주제발표를 통해 다뤄진다.

2부에서는 기문·대사와 주변 세력(국립경주박물관 이용현 학예연구사),

반파의 역사적 성격과 지역적 특성(국립해안박물관 백승욱 전문위원)에 대해 살펴볼 예정이다.

특히 마지막 발표 주제인 반파국의 위치 파악은 가야사 향방에 매우 중요한 요소이기에 기존 학계에 제출된 남원설, 장수설, 성주설, 고령설 등 각 견해의 문제점을 검토하고 향후 반파국의 위치에 대한 역사·고고학적 연구의 심화 요청이 제기될 전망이다.

황철호 도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인사말을 통해 "전북지역 고대정치세력과 가야와의 연계성을 통해 전북가야의 뿌리를 확인할 수 있기 바라며 앞으로 도 전북가야 실제 규명을 위해 전문가 및 관계자 여러분의 많은 열정과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부터 17일까지 국립중앙박물관 일원에서는 전북·경북·경남이 함께하는 영·호남 가야문화권 한미당 행사가 개최된다. /김진성 기자

## 선관위, 권익위와 '정책 빅데이터 분석' 업무협약 체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4일 국민권익위원회와 '정책 빅데이터 분석과 활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는 내년 총선에서 국민 생활과 밀접한 다양한 정책이슈가 정당이나 후보자의 정책·공약 기초자료로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이날 업무협약에 따라 두 기관은 민원을 활용한 정책 빅데이터 분석사업

을 공동 추진하고 정책 의제 발굴을 위한 정보 교류를 약속했다.

권익위의 '민원정보분석시스템'에는 국민신문고와 지방자치단체의 개별 민원 청구에 접수된 민원 데이터가 종합적으로 수집·분석되고 있다.

박영수 선관위 사무총장은 "이번 협약은 국민의 권리를 보장하고 권익을 보호하는 두 기관이 접점을 찾은 사례"라며 "헌법기관과 중앙행정기관 간

경계를 넘어선 이번 협업을 통해 국민의 생활 속에서 발굴된 정책 이슈가 선거 전후 정책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의미 있게 논의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은 "업무 영역은 다르지만 '국민이 주인이 되는 정책 실현'이라는 가치를 공유하고 민원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정책 공약이 발굴된다면 국민의 권익구제와 고충민원 해소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

**꿈을 키워주는 회원 모집(무료)**

**전주 봉숭아 학당 힐링 웃음교실**

- 국제여가문화협회(봉숭아학당) 전주학당
- 도내 각 평생교육원 강사
- 한국문화예술진흥회 전북 사무처장
- 한국스피치, 웅변협회 전북 이사
- 도내 각 기관, 단체, 복지관 특강
- 웃음치료사, 노래강사, 스피치지도사, 치매예방지도사, 난타지도사 등

학장(강정인)

강의분야: 웃음치료, 행복노래, 차매예방, 민요율동, 생활제조, 난타, 레크

※ 참고

- ① 각 분야 자격증 희망자 취득가능 상담 후 교육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 ② 남녀, 노소 누구나 희망분야 교육받을 수 있습니다.
- ③ 주저하지 마시고 상담을 하세요
- ④ 꿈을 키워주는 학습의 길이 있습니다.

국제여가협회. 전주 봉숭아 학당 힐링 웃음교실  
전주시 완산구 서완산동 1가 201, (3층)  
(바울센터 옆 텍시양복점 건물)  
(H·P: 010-2078-4810)

**명강사 초청 무료 공개 특강**

도민 여러분!  
깊어가는 만추의 계절에 재미있고 중요로움이 있는 특강에 무료로 초대합니다. 감성과 표현의 시대, 이미지시대, fun의 시대, 소통의 시대에 본 강의를 통해 재미있고 행복하며 유익한 결실을 맺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강사: 용혜린      강사: 김양욱

- 시인, 베스트셀러 작가
- 유머 자신감 연구원 강사
- KBS TV 아일마당 등 인기 강사
- 2009년 한국강사협회 추천 명강사
- 강의주제: "딱 한번뿐인 인생 멋지게 살자"
- 전주교육대 겸임교수
- 전북대 토론과 면접 실기 강사
- 한국스피치&미디어 컨설팅 대표
- KBS TV 아일마당 출연 등
- 강의주제: "전장을 위한 스피치"

◎ 일 시 : 2019. 11. 21.(목) 오후 7시  
◎ 장 소 : 참예우 (전주시 덕진구 호성동 칠길굴다리 앞)  
(장소주소: 전주시 덕진구 동부대로 769, 전주완주김제축협)  
◎ 문의전화 : 285-6676, 231-6669, 010-7304-5665

한국스피치·면접·리더십 컨설팅  
전북도내 스피치과정 원우회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www.jmaeil.com